

“성경적 창조론과 창조신앙 교육을 지지한다”

온누리교회 지체대사역본부가 발표한 '행복한 부서를 위한 바른 교사 되기' 지침서 내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부분은 교사 의무 중에 '유신진화론 반대, 동성애 반대'이다. 유신진화론(또는 진화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생명체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며, 진화를 거쳐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주장으로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가설일 뿐이다. 동성애는 유전적 질병이 아니라,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대학교 우중학 교수는 "온누리교회가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전파하고 있다. 지구 나이가 1만 년밖에 되지 않았고, 지구가 생성된 후에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허황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것은 복음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비난했다.

우주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우주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음을 뜻한다. 교회에서 유신진화론을 바탕으로 가르치면 지성적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창조론을 가르치면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이라는 비난은 너무나 편협하고 비교육적이다. 오히려 진화론을 믿게 되면, 아담의 역사성과 죄의 기원을 부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의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가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가장 완벽하고 성숙하게 창조하셨으며, 피조세계에 생명체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와 한국창조과학회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배운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신앙적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 진화론을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시간에 배운 모든 내용을 부정한다는 비난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오히려 과학시간에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알 권리와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온누리교회가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 창조신앙'이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한 창조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다음세대들을 붙잡기 위해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몰락한 유흥교회의 역사가 이런 주장이 틀렸음을 잘 증명하고 있다.

태양계와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뿐,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학교에서는 빅뱅우주론을 유일한 우주 기원론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천체물리학자들이 빅뱅

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진화론

한국창조과학회

역사 왜곡, 문재인 홍보 책자로 전략한 한국사 교과서!

학부모는 거부하며 차라리 역사교육 시키지 말라!

올 3월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선동, 서술 오류가 너무 심각하다. 좌편향 정도가 아니라 현 정권 홍보물로 아예 이런 책을 만들고 검·인정을 통과했다는. 이런 독극물 교과서를 학생 손에 쥐어주다니, 전국 학부모는 이런 정권 홍보책자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어 채택을 거부한다.

조정과 맞물려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자명하다. 헌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하의 다양성은 바로 속임수이며 다양한 역사해석은 학자들 소관이지 학생에게 역사관이 왜곡되며 사실과 유려한 통찰을 가르치는 것이 정답이냐! 이것이 어렵다면 학계의 피터지는 논쟁이 끝날 때까지 역사교육은 멈추는 것이 옳다. 나쁜 교육, 엉터리 역사는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교과서로 부르기대 민망한 8종은 기존 전근대 : 근현대 비율이 1:1에서 1:3으로 근현대사가 75%까지 늘었는데 이삼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건국, 산업화 성과를 축소하고 내용 대부분이 4.19, 5.18, 6.10 항쟁까지 민중 저항사, 노동자 우선이다.

선택이던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우린 제대로 된 교과서를 준비하지 못했고 좌편향 역사학계 내부가 만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정교없이 교육이 계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차라리 무식한 자식이 낫다. 잘못된 교육을 수정하는데 수십년 세월이 걸리고 딱지 딱지 뒷발라 회색인간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 할 일이 아니다. 올바른 역사책이 나올 때까지 교육을 중단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기업과 시장, 눈부신 경제성장은 편향해 국민적 자긍심을 해치게 기술했다. 여기에 세월호, 촛불이 화용점이나 이런 걸로 한국사가 될 수 없으며 이런 교육은 절대 안된다. 이 '거북교과서'는 표지부터 낱다르다. 대한민국 보물 남대문과 위안부 소녀상이 아예 나란히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촛불들고 활짝 웃는 소녀'가 등장하고 거짓 평화 두 우주머리가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넣은 출판사도 있다.

때 맞춰 김기수 변호사의 '한국사교과서 사용중지'가 처분 신청'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감사한다. 행정법원은 이것을 꼭 받아들여길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책임자들! 당신들이 진정 교육자라면 당장 한국사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고 이 운동에 앞장 서시길 촉구한다.

천안함은 '폭침'에서 '침몰' 또는 '사건'으로 '강등'되었고, 연평도 사태는 기술조차 안했다.

현 정부, 현 지도자를 교과서에 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역사란 시대적 평가를 필요로 하기에 보통 최근 30년은 담지 않는다. 현 문물을 앞세운 것은 선거연령 18세

현 정부, 현 지도자를 교과서에 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역사란 시대적 평가를 필요로 하기에 보통 최근 30년은 담지 않는다. 현 문물을 앞세운 것은 선거연령 18세

2020년 2월 4일
전국학부모모임연합

CTS 예술단, 신년하례식 열어

예술단 운영방안과 한해 사역 방향성 논의

올해 창단 16년 되는, CTS 예술단(단장 김기배 CTS N 대표이사, 이하 김기배 대표)은 지난 2월 4일 (화) CTS기독교TV 사옥 13층 리운지에서 2020년 신년하례식을 갖고 예술단 운영방안과 한해의 사역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예술단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기배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CTS 예술단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은퇴한 실버세대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추어 합창단뿐만 아니라 음악을 얻으로 하는 기독교 전문 예술인들이 함께 연합해 운영되는 국내 최고의 합창단으로 기독교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부 회의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진행될 CTS 기독교TV의 2020 이스터 퍼레이드, 제 10회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 희망! 대한민국 등 연중행사와 예술단 운영 방안들을 논의하고 연합공연 '메시야'의 기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CTS 예술단 소속의 장르합창단(단장 최윤진), 권사합창단(단장 최용희), 교향악단(단장 동형준), 오페라단(단장 김학남), 소울콰이어(단장 손인오), 서울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이승아), 오케리나 오케스트라(단장 홍광일), 콘서트콰이어(단장 박경희), 사모합창단, 침중합창단(지휘자 김미옥) 등 25명

1부 예회에서는 CTS기독교TV 사목(임재환 목사)가 "찬송은 하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말씀을 전했다. 김기배 대표는 CTS 예술단 소속 단장과 지휘자들에게 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CTS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선교본부 담당 본부장은 CTS 예술단은 "온 세대가 오직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중보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찬양과 예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운영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하며 CTS 예술단 활동을 통해 보다 대중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CTS 예술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사인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으로 장르합창단, 권사합창단, 사모합창단, 침중합창단, 교향악단, 오페라단, 소울콰이어, 오케리나 오케스트라, 콘서트콰이어,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 영아합창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정기 연주회 및 국내외 선교사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단으로 건전한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이 라면 그 누구나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족방촌과 독거어르신초청 수요예배

동경희망선교교회,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족방촌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사)혜동은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의 엘드립노인대학(학장 최에스터 신혜대 교수)은 지난 1월 29일(수) 일본 동경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동경희망선교교회 정진숙 목사를 초청하여 밥사람 나눔 수요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다.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장현일 목사는 일본의 많은 노숙자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감동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전하고 "두 교회의 사역을 공유하며 영혼구원을 위해 중보기도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정진숙 목사는 일본 노숙자 중 자살시도자 알콜중독자, 전과자 등 인생을 포기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증사례로 소개하며 오직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

이날 말씀에 이우경 교수(혜동대학원)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대표기도는 나눔의 봉사로 섬김 감승화 인수집사가 드리고 식사나눔봉사는 김 집사 가족이 참여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뵘 발행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